

# 주간예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12  
Dec. 2018  
Vol.6 No.12

- 새해 메시지
- 새가족 주안예만남
- 성가대 / 권사회
- 교육부 소식 / 칼럼

주간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크리스마스 전야인 24일 밸리채플 '저녁송' 찬양팀이 장로님댁을 방문해 캐롤을 부르고 있다. <양영 기자>

## 메리크리스마스 & 해피뉴이어!

### ■ 성탄감사예배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2월 23일 주일에는 아기에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예배가 주안예교회의 두 채플에서 드려졌다.

주변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에만 집중하는 주안예교회의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셔서 분을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사랑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오직 그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다짐하는 정성어린 예배와, 권사회에서 마련하신 훌륭한 음식으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다.

한편 성탄절 이브인 12월 24일 저녁에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노래하는 이브송을 기획하였다. 밸리채플의 성가대원을 비롯한 모든 희망자들이 모여서, 두 팀을 이루어서 밸리채플 근처에 거주하시는 장로님댁들을 방문하였다. 학창시절 한국에서의 새벽송을 추억하며, 즐거운 캐롤을 불러드리고 "Merry Christmas" 를 외치면서 반가히 맞아주시는 장로님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 오희경 기자 |



■ 새해소망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계순 권사(MP)**

2019년도에는 항상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

서 가장 원하시는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하소서



**유진희 권사(목사)**

새해 소망은 딸 아이가 엄마가 되어 저를 할머니로 등업 시켜 주길 바라며 가족들 모두 건강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한 믿음이 깊게 뿌리 내려 굳건히 성장하길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김선희B 권사(목사)**

참 긴 한해를 보냈듯 합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랑과 위로로 섬겨 주셨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곤 하지요. 2019년에는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 따라 더욱 기도에 힘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일상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렵니다.

■ 새해 메시지/ 최혁 담임목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얘기를 안했지만 저는 소녀시대의 메인보컬인 티파니를 잘 알고 있습니다.

티파니는 한국의 아이돌 가수로서 1989년 8월1일 생으로 한국인 3세이며,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다이아몬드바 고등학교를 졸업, 본명은 황미영(키 162cm, 몸무게 48kg)입니다. 티파니의 어머니는 티파니가 14살 때 돌아가셨으나, 티파니는 자신의 목이나 손가락에 늘 하고 다니는 엄마의 반지처럼 엄마의 기도가 늘 함께하기를 바랬습니다. 티파니는 춤 추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교회 행사에 티파니를 초대하려고 하나 티파니와 연락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티파니를 아는데 티파니는 저를 몰라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를 제가 티파니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티파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서 티파니 자매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티파니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며 지난 해를 돌아보니, 2018년에는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17:3)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하여 지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미로써, 마치 제가 티파니를 알고 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으로만 알고, 그 지식으로 스스로를 마귀처럼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안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이며 히브리어로는 ‘야다’로, 야다는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뜻만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 '동침하니'가 '야다'로 지

식이 아닌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2019년은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므로 더욱 친밀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2019년을 위해.. 첫째, 예배에 집중하여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삶에서 경험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MP체플의 성도님들은 예배처소가 변경되는 불편함이 있으나 그 불편함이 오히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동기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훈련받는 한 해로 평신도 사역훈련원의 ‘주안에 생명’ ‘주안에 빛’ ‘임직자 훈련’ ‘목자와 작은목자 훈련’ 등 많은 훈련을 통해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기위해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예교회 성도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은 물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므로 의미있는 2019년 한 해를 맞이합시다.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 교우동정

#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김밥 싸고 버스 타고 즐거운 소풍

**드림교구(벨리)** 지난 12월 8일에 주안예교회 드림 목장(70세이상) 에서는 가을 나들이를 다녀오셨다.

이른 새벽 60 인승 대형 버스로 김밥과 도시락, 브니엘의 맛있는 커피, 스낵 등으로 완전 무장한 어르신들은 며칠전 삼일이나 내린 비로 새벽마다 화장한 날씨를 달라고 기도하신 응답을 받아 화장하고 따뜻한 날씨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다고 기뻐하시며 버스에 오르셨다.

점심은 카 추마 레이크에서 만난 도시락으로 접수신 후, 솔벡에서 아기자기한 덴마크 촌에서 구경과 쉼을 가지시고 내려오시면서 산타바바라 바닷가에서 김밥과 마지막 남은 커피까지 탈탈 털어 맛있게 해치운 후 짧은 하루 여행을 즐겁게 끝나치고 귀가하시면서 내년에도 또 다시 소풍 갈 마음에 감사함과 기대로 가득 하시다고 하시며 교회와 도움을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렸다. | 임용자 기자 |



**김영기 장로, 김영희 권사(MP)** 김영희 권사님과 김영기 장로님께서 3주동안 샌프란시스코의 파넬 맥을 방문하십니다.

이번 방문에는 한국에서 오신 오라버님도 만나는 그리운 시간으로 아름다운 추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매 주마다 한결같이 맛있는 음식으로 저희들의 섬겨주시는 권사님의 손 맛이 벌써 그리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최미정 권사(MP)**

최미정 권사님께서 지난 달 아들인 다니엘을 한국에서 결혼을 시키고 오신 뒤 한달 후인 12월 22일에 또 다시 딸 사론을 주안예교회의 벨리채플에서

최혁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혼인의식을 치루셨다. 불과 두달사이며 며느리와 사위를 맞는 복을 누리게되심을 축하드리며 그 가정에 한없는 보살핌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 드린다.



**박동준, 지혜성도(MP)**

매주일 예배에서 찬양인도로 주안예 사역을 맡고 있는 찬양국의 박동준 예비아빠와 박지혜 예비엄마가 지난 12월7일 첫 딸인 박세린을

품에 안으므로 진짜아빠, 엄마가 되었습니다. 12월 9일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세린이 아빠가 2부 주일예배 찬양인도까지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세린이 엄마와 같은 사역에 최선을 다한 세린이 아빠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세린이 태어난 날 오후)



## 10년째 음악 꿈나무 지도 콘서트 성황 이뤘

**구자형 집사(벨리)** 주안예교회 구자형 집사가 단장으로 있는 벨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10주년 겨울콘서트가 지난 16일 본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베르디의 Overture to Nabucco로 시작하여 A Most Wonderful Christmas를 마지막 곡으로 겨울밤 concert는 우리들 삶의 품격을 높여주었고 연주가 끝난 후 단원과 400여명의 손님들로 꽉 매운 교회 식당에는 학부모님들의 정성어린 솜씨로 만들어진 맛있는 저녁 식사도 제공되었다. 특히 구집사님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교회에 무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 벨리채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인 주안에 만남이 지난 12월 6일 벨리채플에서 있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새식구를 맞이할 때처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잔치하듯이 준비하신 김진석 국장님과 스테프전원은 모든 정성을 다하셨다. 카메라맨도 세분이나 되어 어디서 사진이 찍힐지 모르니 예쁘게 웃으며 좋아라하는 새가족들을 만나니 들뜨고 행복한 마음은 너무도 크고, 감사했다. 양송이소프를 시작으로 돈까스정식과 꽃으로 장식한 과일후식까지 풀코스인 디너는 그 어떤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고 훌륭했다.

이어 새가족들의 각자 자기소개와 목사님소개, 교회의 소개와 역사들을 목사님께서서는 차분히 말씀해주시니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많이들 좋아하셨다.

더 감동이 되고 감사한 것은 평생에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새가족이 많다는 사실이었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새가족들을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축복했다. <새가족 소감 11면>

| 임용자 기자 |

따뜻한 정성, 행복한 만남...



김옥자 권사



유승임 성도



이윤아 성도



이희정 성도



안호영/유혜리 집사



감데이빗/희란 집사

■ 새가족 글/ 최윤정 집사



저는 하나님을 영접한지 오래 되었지만 항상 주일 예배만 드리고 교회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선데이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이 힘들던 시기에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저희언니가 하나님만이 저의 마음에 평안을 줄거라 말하며 집에서 가까운 주안에 교회를 권해주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에 수요일예배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회복을 통해 저의 첫 사랑의 믿음이 다시 찾아오는 듯 하였습니다.

한국방문이 있는 일정가운데 반갑게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힐링캠프를 주관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해 참석할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매 주일 들을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구요.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다시한번 알게되고 저를 향하신 사랑과 목적을 알고 느낄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상연 성도



유연화 권사



김정희C 집사



허영자 권사



이미랑 권사/이상봉 장로



이우연/박수진 성도



■ MP채플

## 아름다운 교회 함께 일궈요



이혜진B 성도



정진희 집사



미숙 베이코/어니 베이커 성도



박다이앤 집사



김현태C 집사



도영하 장로/도영희 권사



조사이먼 집사/이성은 집사



박동준B 집사/박경민 집사



나노 성도



신패티 전도사/신제이 안수집사



이애슬리 집사/김광성 집사

지난 12월 2일(주일) 2부예배를 마친 후, MP 채플에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주안에 만남이 브니엘 카페에서 있었습니다.

고용일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모임은, 최혁 담임목사의 목회비전과 목회철학 그리고 주안에 교회의 교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참석하신 19분의 성도님들은 더욱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귀를 쫑긋 세우며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몇몇 영어권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100프로 이해하며 은혜를 받고 있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이 주안에 만남을 통하여 참여한 모든 분들,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 모두는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확인 하였고, 지금부터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협력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신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광영 기자 |

■ 새가족 글/ 정지숙 집사

중가주에서 4년전 이곳 몬테레이파크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오래 전부터 최혁 목사님의 CD를 가끔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던 중에 뒤편게나마 Monterey park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고 주저없이 등록을 했습니다 주안에교회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 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한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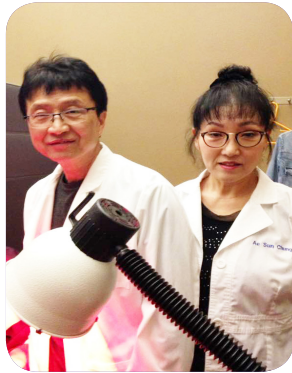




■ 주안에일꾼

동서양 의술로 3년째 봉사

벨리채플 정명안 집사님은 3년째 의료국에서 봉사하고 있다. 미육군에서 Medic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제대 후 간호 대학을 졸업한 다음 현재는 카이저 병원에서



RN으로 근무하며 아울러 사우스 베일리 한의 대학에서 한의학을 공부하여 한의사 자격증을 따, 한방과 양방의 조화를 이루며 교회의료국에서 격주로 봉사 하고 계신다.

매사에 정확하고 책임감으로 유명한 집사님께서는 한 분이라도 더 치료 하시고자 예배 후 식사도 방에서 하시면서 부인 집사님의 철저한 내조를 힘입어 치료에 최선을 다하시니 많은 교인들이 혜택을 입어 얼마나 감사 드리는지 모른다.

늘 치료에 시간이 적어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제 몇 년 안에 은퇴 하시면 풀타임으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표가 소원이 되셨고 그때는 밖에 트레일러 건물로 의료국이 나가면 침뜸과 쑥뜸 등 치료할 수 있는 동서양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치료를 해 드리는 날을 기다리며 쉼없이 달려 온 길을 또 다시 사명으로 알고 의료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집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 드리고 축복합니다. | 임용자 기자 |

몸도 튼튼 지혜도 쑥쑥

■ IC KIDZ 성경암송대회



두시한 우리  
나같은 직인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의 찬송이~



한어청년부원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크리스마스 저녁송 행사에 참여한 윤석중/류명수 집사님 가정



■ 마하나임 송년 모임

## 양보와 배려로 하나된 '하나님 군대'

마하나임 성가대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 안에 교회의 선봉에 서서 출정한 지가 어언 4년이 지났습니다. 새로 시작한 개척 교회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대원들을 높여주고 품어주었기에 하나님께는 기쁨을, 교우들에게는 은혜를 나누는 찬양을 매주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FULLERTON 채플과 LA 채플이 MP 채플로 하나 되어 성가대가 연합을 하는데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두 채플에서 온 대원들은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성가대를 섬겨오는 동안 하나로 녹아들어 마하나임의 기치아래 든든하게 뭉쳤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대원들과 임원들이 헌신하고 노력하였지만 그래도 선봉에서 성가대를 이끌고 인도한 지휘자들과 반주자님들의 희생과 지도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타주를 오가는 장거리 운송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격주로밖에 교회에 올 수 없지만 영광의 찬송을 울려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장남식 집사님, 한국에서 갓온 새신랑으



로 모든 것이 낯설고 서먹하겠지만 오직 은혜로운 찬양을 만들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성남 형제님, 집도 멀고 게다가 눈병까지 있지만 최선을 다해 헌신하신 김혜자 반주자님과 전공을 하지도 않았지만 없는 시간에 연습에 연습을 하며 반주를 해주신 김숙현 간사님의 아름다운 희생은 올해 마하나임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제물이었고 마하나임 성가대의 역사와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성가대는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 귀감을 삼고자 교회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작은 선물을 전하고 감사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목사님께서는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감사의 카드와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마하나임 성가대를 위해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모든 대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운 기자 |

■ MP 3, 4, 5목장 송년 모임

## 묵묵히 달려온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MP 채플 3,4,5목장 (목자장 나형철 장로/나윤자 권사)은 지난 12월 16일(주일) 오후 4시 30분에, 친교실에 모여 2018년도를 돌아보고 한해 동안 수고하신 목자들과 목원들을 위로하고 함께 식사와 게임도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혁 담임목사께서는 한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분들을 격려해주시고 2019년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모범적인 목장이 되실것을 권면하였습니다.

3목장(목자 고용홍 집사/고하나 권사), 4목장(목자 전정자 권사), 5목장(목자 이광영 집사/임혜신 권사) 목자들이 함께 준비한 저녁식사를 맛있게 함께 나누고, 2부 순서로는 이정순집사의 진행으로 재밌는 게임을 통하여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함께 보냈으며, 게다가 푸짐한 선물까지 준비한 아주 넉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도님들을 제외하고는 30여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아주 즐겁고



도 화기에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8년 한해, 몬터레이 지역에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또 이렇게 3,4,5목장이 연합하여 2019년도에도 주님 주신 성전과 허락하신 성도님들을 더욱 힘써

섬길 것을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를 뜨기 아쉬웠지만 시간이 8시가 다 되어 각자 집으로 총총 걸음을 하였습니다.

| 이광영 기자 |



## 덕담과 감사가 넘친 행복한 송년파티

### ■ 권사회(MP)

지난 12월 2일(주일) 오후 4시, 박경숙 권사택에서 MP 채플 2018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인범 장로의 찬양인도와 이예스더 권사의 식사기도와 함께 시종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회가 되자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여분의 권사님들과 또 바쁘신 중에도 최혁담임목사님이 참석하시어 함께 즐겁고 풍성한 식탁을 감사함으로 나누었습니다.



### ■ 영커플

지난 12월 22일 저녁 7시, 한인타운에 있는 음식점에 영커플 식구들이 하나둘씩 선물을 들고 모였습니다. 아이들까지 합쳐 17명이 모여 방 한가득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해동안 여러 커플의 출산으로 식구들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출산 예정소식이 있어 더할나위없이 감사하고 뜻깊은 한해였음을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배불리 식사를 한 후, 각자가 준비해온 선물을 추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한해동안 문병훈, 정은 목자의 헌신과 정성스런 돌봄으로 영커플이 하나됨을 잘 이룰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 ■ 성경암송대회

12월 23일 성탄주일, 교육부에서는 성경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생활과 암송을 적극 장려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훈련이 되게 하기 위해, 이 대회를 기점으로 말씀암송의 동기부여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들을 외우는데 1-2개월동안 집중하였고, 그 시간들은 성탄에 오신 주님에 대한 경건의 축하선물용으로 헌신한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암송대회 입상자- MP채플 1등: Grace Kim, 2등: Samuel Moon, 3등: Gloria Kim/ 벨리채플 1등: Aiden, 2등: Joshua, 3등: Momo, Colin, 참가상: Alexander, Gracie, John, William



■ 사역일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삶

나에게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측근이고 싶다, 그러기에 주님을 보고싶다, 만나고 싶다, 가까이 있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선택한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다.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 중심에서 나만의 욕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나를 불러 주셨기에 하던 일(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원단사업과 옷가게 운영)을 멈추고, 겁도없이 뛰어든 곳 그곳은 전혀 경험도 없는 교회 사찰직이었다. 그곳에서 최혁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게된 기쁨과 행복한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른 은혜로 다시금 귀한 부르심이 있어 성전과 정원의 규모가 엄청난 주안에교회에 몸담게 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주안에교회는 상상할수 없는 또다른 채플로, 이민사회의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장의 발걸음을 멈출 줄 몰랐다.

그간의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분주히 오가면서 가슴 벅찬 사역을 일관성있게 감당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왜 나는 이처럼 행복한 삶이라 외치는가?"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수많은 교우님들의 베풀어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오늘도 주안에교회에서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한 마음을 깊이 깊이 간직하고 싶다.



안병현 집사



주안에신문 한해를 돌아보며

2018년 문서국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정착시킨 한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매달 초에 모든 기자들이 모여 지난달에 나온 신문을 보며 평가하고 다음 달의 신문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간하고 어떤 기사를 실을 것인가를 토의하고 신문을 만든 것입니다.

오희경 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국장님의 섭외와 노력으로 많은 기자들이 새로 발탁된 것은 올 해 문서국의 큰 발전이었습니다. 특히 임용자 권사님과 박경숙 권사님은 진주를 캔 것과 같은 큰 수확이었고 하나님께서 문서국에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두 분의 문서국 합류로 두 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두 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주안에 신문에 대한 열정이 주안에 신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문서국은 두 채플을 가진 주안에교회에서 유일하게 두 채플의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과는 달리 문서국 사람들은 매달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모이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서국의 자랑 아닌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전임 국장님이 기자로 함께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전임 국장님은 새로운 국장님이 임명되면 그 기관에는 참여하거나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문서국의 이광영 전임 국장님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 전통을 깨뜨리셨습니다. 지난 2년간 국장님으로 헌신하셨는데 올해는 기자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사를 쓰시고 신문을 만드는 일에 노력하셨습니다.

문서국은 지난 12월에 부부 동반으로 함께 모여 지난 한 해 신문이 잘 발행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안에생명 2기 첫 단계 훈련

주안에 생명 2기가 새로이 시작 됩니다. 신앙의 기초 내리기 1단계 훈련이 2019년 1월 9일~2월 17일까지 있습니다. 훈련의 대상은 주안에교회 등록 교인과 주안에교회 등록교인이 추천하는 타교회 성도입니다.

벨리채플은 수요일(1월 9일 시작), 목요일(1월 10일 시작), MP채플은 주말반(1월 13일 시작)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모태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벨리·MP채플서 개강

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구원이나 회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우리가 아는 지식은 많은데 스스로 정리 정돈이 안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매울 수 없는 안타까움을 경험한 일이 없으셨는지요?

최혁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회개했지만 그 동기를 괄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없었던 우리는 이단에 넘어 가기도 하고, 바른 말씀에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을 스스로 경험 하셨는지요? 그런 우리를 아시는 목사님께서 2019년을 시작하며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의 장을 먼저 여십니다. 교리의 뼈대가 굳건히 세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믿으며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참석하기를 권고 합니다. | 이예스더 기자 |

## ■ 주안에게 가족 소감(밸리채플)

## ■ 나의 신앙에 영향을 준 인물

## 잊을 수 없는 25년전 성탄이브

지금부터 25년 전 성탄절 전날 죽음을 앞에 두고 절망 중에 기도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1993년 5월 몇 달째 기침이 계속 나고 목이 쉬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 C.T. 촬영을 해본 결과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수술도 포기하고 밤낮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 하였는데 기도드린 것 중 가장 간절히 드린 기도 제목은 자녀문제였습니다. 아직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탁월 일들을 생각 하며 하나님께 5년만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기를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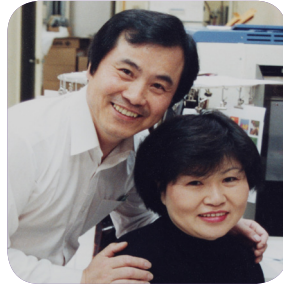
폐암 판정 후 2달여를 지내며 건강이 더욱 나빠진 나에게 마음의 평정을 찾고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책)이 톨스토이였습니다. 그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란 책을 읽고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인생관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면 접수 후 2~3시간은 보통 기다리곤 했는데 그날도 병원엘 가는 날이라 기다리며 읽으려고 집에 있던 책들 중 부담 없을 것 같은 제일 얇은 책을 제목도 보지 않고 하나 들고 가서 보니까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데 줄거리는 쌍둥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젖먹일 힘조차 없는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서보니 엄마가 없으면 쌍둥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냥 되돌아 온 미하일 천사에게 하나님은 별로 1) 사람에게 있는 것. 2) 사람에게 없는 것. 3)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3가지 질문과 함께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3가지 문제의 답을 알아낼 때 다시 천사로 부르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진 미하일은 구두 만드는 일을 하는 시몬이란 사람의 구원을 받고 그를 도와 그의 조수로 구두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미하일은 얼마 안 돼 첫째와 둘째 문제의 답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여인이 두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와 신발을 주문합니다. 그들을 본 미하일은 이 쌍둥이 자매들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엄마의 영혼을 거두기 위해 갔던 그 아이들이고 엄마가 곧 죽게 되자 불쌍히 여긴 이 이웃 여인이 데려다 키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없이도 이 여인의 사랑만으로 잘 자라온 이들을 본 미하일 천사는 3번째 질문의 답을 곧 알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곧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사랑으로 산다.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신다.

나는 3번째 질문의 답을 읽는 순간 가슴이 후련해 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문제들은 모두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면서도 자녀 문제는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나는 자녀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식이 요법을 시행하게 되어 상태가 호전되었고 또 심경의 변화가 와 주치의의 권유로 수술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개월 후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CT 촬영을 했을 때 있던 포도 알 크기만 한 덩어리 4개중 1cm 정도 되는 것 1개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져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보를 받은 날이 25년 전 1993년 12월 24일 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성탄절 전날만 되면 그때 감격으로 설레이고 감정이 새로워집니다. 5년만 더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5배도 더 살게 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나형철 장로, 나윤자 권사

## "주안에만남, 하나님의 섭리"

**안호영, 유혜리 집사** 아내가 유스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를 가르치고 저는 테니스를 치다가 주안 에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둘만 가족으로 사는 외로운 미국에서 목장은 나의 가족을 얻은 기분 이었고, 목원들도 저희를 가족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뿐만아니라 찬양팀으로 쓰임받게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옥자 권사** 저는 현재 Oxnard에 살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살고 있는 큰아들 내외가 밸리라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말씀이 좋다며 목사님 말씀 CD를 보내주어 들어보니 너무 좋아 주안 에교회로 찾아왔습니다. Oxnard가 너무 멀다고 생각되어 주저했는데 세탁소에 오시는 손님이 자기를 주안 에교회에 데리고 가달라는 부탁에 지난 8월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성전문 앞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Oxnard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연 성도** 저는 까마리오에 살고 있고, 7년반을 아프던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너무 외롭고 슬퍼서 울고 있을 때 난생처음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회라는 곳을 어떻게 가야하는지 몰랐을 때 세탁소에서 만난 김옥자 집사님과 같이 주안 에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제부터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이상봉 장로, 이미랑 권사** 저희는 포틀랜드에서 살다 이곳으로 이사한 후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기위함이었지만 어느 교회를 가보아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느낌이 안들었는데 주안 에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른 설교말씀에 이끌리고 말았고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들며, 하나님께서 최목사님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주안 에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 사회보장제도 궁금증 물어보세요(8)

성탄절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기 저기에서 즐거운 음악과 행복한 이들의 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어느 현실에서든지 그 양면성이 있듯이 이 행복한 이들의 삶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문제와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자세도 필요할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갑작스러운 자연적 재난이나 가정 폭력 혹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살고있는 보금자리를 잃어 버렸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반대로 누구 한테나 일어 날수 있는 상황이기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일듯 싶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민 1세가 겪는 언어적 장애, 현지인 들과의 적응의 어려움 등은 때로는 정신적인 장애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 시키기도 합니다. 이미 통계에서 나온 것처럼 거의 과반수의 미국인들은 특별한 비상수단을 준비하지 않고 매달 받는 봉급에 의지하여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가지로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로 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이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나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되었을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를 내기가 힘들어지고 집세 지불이 일정 기간 밀리게되면 강제 퇴거명령 (eviction notice) 혹은 3일내에 집세 지불 또는 강제 퇴거 집행(three day notice to pay or quit)이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혹은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더 이상 있을수 없어서 집에서 나왔을 경우 다음의 여러가지 혜택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1) EAPE (Emergency assistance to prevent eviction program): 이는 갑작스러운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rent 비 지불이 어려워 졌을 경우 신청할수 있는 혜택으로서 자격이 되는 이에게 최고 두달의 rent 비를 지불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총 혜택 액수는 \$2,00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신청하는 이유가 합당하여야 하며 혜택을 받은 이후 rent 비를 본인의 수입으로 다시 지불할 수 있다는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rent비와

###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 혜택 종류와 자격 요건 >

노재덕 집사  
(SSA 근무)



함께 밀린 공과금 (utility expenses) 지불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2) Permanent homeless assistance: 이는 무주택자들이 영구 거주지를 찾았을 경우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가족의 수입이 적어도 rent비의 80%가 되어야 하며 이 자격이 충족되어지면 새로 이사하는 주택의 security deposit과 마지막 달 rent 지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3) Moving assistance (이사 비용 보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2년에 설명한 혜택과 함께 신청할수 있는것으로써 최고 \$2,500 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이용하여 이사집 운반을 위한 트럭대여,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나 스토브등, 가전제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3가지 혜택은 지난호에 설명해 드린 CalWORKs 수혜자들에게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산부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현재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임시 무숙자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Temporary Homeless Assistance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으로써 그 혜택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무숙자 프로그램: 자격은 CalWORKs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분으로써 갑작스러운 문제로 거주지가 없어서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최고 16일 동안 motel 비용이 지불되는데 최근 통과된 거주 상원의 결정에 따라 14일 더 연장할수 있어서 총 30일간 motel 비용이 지불됩니다. 혜택은 1주일 간격으로 주어지며 이 기간동안 최소 하루에 한 장소 이상의 영구 거주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모든 혜택들은 Los Angeles County의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외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비밀 보장이 가능한 임시 숙소들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이나 전화번호 info line 벨리 지역 818) 501-4447 로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MP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9:30

###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MP채플 MP Chapel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 “주안에” 2019년 1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산실, 나형철, 박경숙, 박창신, 박희정, 이광영, 이에스더, 임용자, 조성은, 조용대(기자)

양영, 남성우, 정인섭(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